



통관 53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6. 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지난 2월 3일, 희망의 노래 “꽃다지” 대표 이은진 씨가 노래책 『희망의 노래』를 출판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에 “꽃다지”는 2월 8일 부터 이은진 씨 구속에 항의하고 예술, 창작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거리음악제를 탑골공원 앞에서 (12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꽃다지”는 88, 89년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예술림과 노동자노래단이 92년 3월 통합한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가요 노래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사진은 30번째를 맞이한 3월 8일 “꽃다지” 거리음악제 장면이다.

문민정권 3년의 反문민성

얼마전 일간신문들은 '문민정권 출범 3돌을 맞아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 이 있을 것임을 관계소식통을 빌어 보도했었다. '양심수는 없다, 그래서 양심수 석방도 없다'로 일관해온 이른바 문민정권의 반문민성을 보아온 양심수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름있는 정치인과 특정 사건 양심수의 이름이 올려있는 것을 보고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버리지 못하는 심정 그대로 한가닥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가협 사무실에는 구속자 가족은 물론이고 양심수에게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를 빗발치게 걸어들었다. 얼마나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장기수도 있느냐, 서경원 의원 나오느냐, 사노맹, 민애전 사건은 어찌 되느냐 등. 그러나 이렇듯 마음 조이던 양심수 가족들은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특별사면, 복권 안이 의결된 것을 보고 실망하다 못해 분노로 치를 떨었다. 양심수는 커녕 일반 형사범 가석방 조치도 없이 기껏 슬롯머신 관련 전 치안감과 도로공사 사장 등 부정 비리 공직자 구제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물론 마땅히 무죄였어야 할 이부영 전 의원과 굴엽도 등 핵 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관련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김경민 씨 등에 대해 굳이 죄를 씌워 사면, 복권 식으로 처리한 것도 온당치 못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번 특별 사면 복권조치를 보면서 이른바 문민정권의 반문민성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문민을 자처했다면 인권차원에서라도 지난 군사독재시대와 무언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눈앞의 불이익과 고난을 내다보면서도 옳은 일이었기에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부정비리 범죄자들과의 차별이다. 그것은 정권의 정통성 못지않은 도덕성의 문제이다. 당국은 애써 양심수임을 부정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인사들과 다름없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고 풀려났다 해도 사면, 복권이 안돼 공민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들이 왜 부정비리 범죄자들에 밀려 외면당해야 하는가, 문민의 본뜻은 무엇인가.

또한 문민은 군사정권 시대의 강권주의와 폭압구도와 달라야 한다. 인간존엄 기본권 보장, 악법철폐, 민주적 법치주의를 지켜야 했다. 특히 인신구속, 밀실수사, 강압수사(고문, 자백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갈린 땅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민족의 최고가치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지 구속사유가 못된다. 노,자(노사)사이엔 쟁의가 일어나면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는 게 원래의 시장경제 원칙이 아니던가. 성당과 사찰에 공권력을 들여보내고 UR비준 반대 애국충정의 청년학생을 구속하고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범민련 간부들을 잡아가두고 이미 활동을 안하고 사회각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노맹, 민애전 사건을 두세번 옮겨먹는 국민기본권 탄압 관행과 그 악법을 없애지 않고선 문민은 빈말일 뿐이다.

그리고 문민은 편견과 감정, 정략을 지양하고 정의와 합리주의, 합법성, 인도주의를 갖추어야 한다.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조작사건, 박충렬, 김태년 간첩 조작사건, 이른바 불고지 혐의사건과 비슷한 많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사당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예상이라도 해보았는가. 반공 반복이라면 불법, 불의, 부도덕을 넘어 정당성을 주장했던 냉전시대의 논리라든지 정치적으로 특별한 때마다 일어나는 등 모든것이 투명해야 할 문민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된다면 변화와 개혁, 세계화의 길은 제걸음이다 못해 뒷걸음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이 너무 메말랐다. 군사정권시대에도, 수십년간 갇혀 살며 늙고 병든 비전향 장기수를 석방했었는데 문민시대에는 그러한 관행도 사라졌다(91년 2월 25일 류한옥(74세) 외 네 명, 91년 5월 11일 왕영안(위암) 외 한 명 91년 12월 24일 김석형(76세)외 세 명, 93년 3월 6일 이종환(71세)외 네 명 석방).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찬방에 가두고 74세의 박용길, 주명순 할머니를 구속하고 7,80세가 넘는 여러 중질환을 앓고있는 분들이 구속되고 있다. 유신독재 시대에도 70이 넘는 노인이거나 여성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했었다.

따라서 문민은 냉전논리를 버리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전쟁과 살륙은 가장 극심한 반생명 행위이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일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 인류의 소망이며 우리에게는 최고의 민족적 과제이다. 문민정권은 출범 초 민족이익은 어느 우방에 앞선다 하고 함께 할 동반자라 했었지만 지난 3년간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오히려 긴장만 높아가고 있을 뿐이다. 군사정권시대에 마련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 내용마저 녹슬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경직성은 양심수 양산의 주범이기도하다. 2월 5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324명 가운데 북을 이롭게 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가 264명(81.5%)에이르고 있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정의와 평화, 자주 통일을 위한 참문민을 실천하라.

하나, 두메, 미르의 나라

편집부

“계신 곳이 어디죠?”

“카톨릭 노동청년회 전국연합 사무실인데요, 노랑진 한샘학원 아세요? 바로 그 앞이에요.”

전북 익산군에서 올라온 이순덕(39세)씨가 서울에서 하루 묵은 곳은 카톨릭 노동청년회 사무실이었다. 이순덕씨에게도 서울에 사는 시택식구가 있고 친정식구들이 있다. 그런데 세 아이의 어머니이고 불혹의 나이를 앞둔 여인이 넓은 서울에서 하루밤 묵어 간 곳은 카톨릭 노동청년회의 허름한 사무실이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서울로 오는 차편이 있어서 그 차 같이 타고 오느라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원래 이순덕씨를 만나기로 한 것은 토요일 오후였다. 민가협 사무실에서 기다려도 오시지 않길래 집에 왔다가 저녁 늦게서야 연락이 닿았다.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다. 서울가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 서울가는 차편이 있으면 같이 가시곤 하던 모습이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만나면 우선 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셋이에요. 큰 애가 딸이고 밑의 두놈이 아들이죠. 이름요? 큰 애는 하나된 조국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 둘째는 통일된 조국의 백두와 한라 두 산을 따서 ‘두메’, 셋째는 곰의 순우리말인 ‘미르’라고 지었어요. 물론 셋을 키우자니 힘이 들지요. 그런데 현교육체제에 맞추려면 하나를 키워도 힘들지만 내 방식대로 키운

다면 둘이든 셋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든거죠”

이순덕씨는 공장노동자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중에서 공장 생활 10년 4개월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생각하고 있다. 미싱밖에 모르던 여공은 결혼을 하고 결혼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큰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 수난의 시작은 남편의 작은아버님이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박정희 정권에 ‘찍힌’ 데서 엮고 남편 이화춘씨는 작은아버님 사건이 있는지 20년 후인 1994년 ‘북한공작원’ 접촉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화춘(40세)씨의 숙부인 이좌영(70세)씨는 이리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해 갑부가 된 분이다. 숙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반대 운동을 벌여나갔고 박정권에서는 반체제인사로 이좌영씨를 요시찰 인물로 생각한다. 그 이후로 숙부는 남한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숙부가 남한에 오지 않으니 중앙정보부에서는 이좌영씨를 검거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잔인한 분풀이가 진행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에서는 울릉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간첩 두 명을 검거한다. 그리고 울릉도 간첩의 배후조종자로 이좌영씨를 지목한다. 그러나 이미 남한에 오지 않은지 오래인 숙부를 검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을 줄줄이

잡아들인다. 이화춘씨의 아버지 이지영씨(5년형), 작은아버님 이사영씨(15년형), 외가쪽으로 아저씨뻘 되는 구자현씨(15년형), 이석순씨(15년형), 이을영씨(15년형) 등이 구속되고 많은 친척들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고문당한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소위 '울릉도 간첩단 사건'

혐의로 잡혀간 이좌영씨 형제들, 그리고 외가쪽 아저씨들은 울릉도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자란 산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울릉도는 커녕 바다 밖으로는, 특히 동해바다 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는 평생을 산골에서 산만 보고 농사지며 살아온 분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분들을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아서 형을 살게 한 것이다. 또한 당시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전북대 교수와 동국대 교수를 함께 구속시켰다.

이 교수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유학생 생활 도중 이좌영씨로부터 학비를 도움받았던 것이 금품수수에 해당한 것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 이지영씨, 구자현씨, 이을영씨가 돌아가시고 이사영씨는 피해의식 속에 친척들 만나는 것을 꺼리며 살고 계신다. 유신체제는 산골에 살던 순박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된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있던 1974년 오산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린 감성의 청소년 이화춘 학

생은 아버지와 친척들의 구속을 보면서, 또한 자신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더이상 평범한 고등학생일 수가 없었다. 학교를 자퇴하게 된다. 익산에서 5남2녀중 셋째로 태어나 이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의 유학생 생활을 하던 이화춘



▲ 지난 95년 8월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계최장기수 석방 캠페인'에 설치된 '하루감옥'에서 미르, 이순덕씨, 두메, 하나가 목에 감힌 아버지를 그리며.

학생은 간첩의 아들이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더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설령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간첩의 자식으로 찍힌 사람을 받아줄 넉넉한 사회가 아님을 일찍 깨닫는다. 방황 후 하사관으로 지원해 군에 입대한다. 그런데 불행은 겹쳐온다고 이화춘씨의 상사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잖아도 간첩의 아들로 찍힌 몸인데 상사까지 복으로 갔으니 군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군에서 5·18 광주를 겪고, 삼청교육대도 목격한다. 어렵게나마 의식이 트이

기 시작한다. 제대후 고향인 익산에서 농민회를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화춘씨의 생활은 새로이 변한다. 80년대 초 익산농민회를 시작으로 민중당, 민정추 사무국장 등의 일을 한다.

부인 이순덕씨를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19살에 이리에 있는 다국적기업 '후레아패션' 미싱사로 출발한 이순덕씨는 공장생활 10년 4개월만에 어용노조 때문에 해고당한다. 이순덕씨가 87년도에 복직 투쟁을 할 무렵이었다. 회사에서는 소위 구사대라는 것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여린 여공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일쫓았는데 이때 이리에서 가까운 익산농민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사대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 복직투쟁도 하고 87년 6월 항쟁때 함께 가두시위도 하면서 이화춘씨와 이순덕씨의 만남은 찾아지고 우연의 일치로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최루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공장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 좋은 이순덕씨를 바라보는 이화춘씨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

“그전까지는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공장생활이 너무도 재미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하며 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즐겁더라구요. 그래서 10년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직투쟁을 하며 우리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한밤중에라도 달려와서 소리치고,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게 되면 스티로폴 같은 것 구해와서는 앉으라고 하고, 그 모습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남자면 괜찮겠다 싶었죠.”

남편은 청혼을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다. 더이상 간첩의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다.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또 내 아이들이 회생을 당한다며 마음의 각오가 되면 결혼하자 했던 것이 이제는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또한 9식구의 생계를 꾸리는 주부가 된 것이다. 이화춘씨 형제들은 울릉도 사건이 있은 후 정상적인 사회 생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직하거나 이혼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조카들을 이순덕씨가 셋을 키웠는데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까지 모두 9식구의 거대 가족이 되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계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때부터 이화춘씨는 양봉업을 시작한다. 봄에 벌을 따라 강원도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8, 9월경에 돌아오는 일이었

다.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오로지 꽃과 벌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 94년 8월 26일 집안 제사가 있어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화춘씨로부터 오후 5시 반쯤 집에 도착한다는 전화가 오고 안기부 수사관들은 정확히 6시에 들이닥쳤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집의 화단을 파헤치고 장독대를 일일이 열어보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잡아갔다. 사노맹 사건으로 잡아간다는 말을 남긴채.

3일후 안기부에서 발표가 있었다. 사노맹 사건은 간데없고 일본에 있는 한통연이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5천4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죄였다. 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일반인도 해외에 나갈 수 있게되고 이화춘씨 부부는 그동안 만나뵙지 못한 숙부를 일본에 가서 만났다. 어려운 살림속에서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조카부부를 보며 살림에 보태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준 돈은 금품수수에 해당했다. 숙부와 만나 가족 얘기를 나눈 것은 국가기밀누설죄가 되고, 신문스크랩을 한 것 또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다. 숙부의 딸(이화춘씨의 사촌누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웃에 사는 동포가 초대되어 자리를 함께 했었다. 이 때 초대된 이웃 사는 한민족의 우리 동포들은 신원미상의 북한 공무원이 되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죄가 되었다. 또한 익산에 사는 카톨릭농민회원이 교통사고로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며 실명위기에 처했었는데 일본의 안과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소식을 듣고 숙부에게 부탁하여 일본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이는 포섭죄에 해당됐다. 이화춘씨는 포섭할 사람이 없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포섭하고, 해외로부터 공작금을 받을 때는 이화춘씨 명의로 되어있는 외환은행 통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다.

숙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일본 전역을 다니며 한 민족이 한 명이라도 사는 마을이라면 상영을 했다. 또한 '제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 교포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숙모 또한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니 안기부에서는 더없이 좋은 '꺼리'가 되었고 언제 사건을 엮어 터뜨리느냐가 문제였다. 그리고 7년의 선고가 있었다.

"제일 힘든 일ियो?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힘들죠. 기존 활동가들은 커가는데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고립되는 느낌 이랄까. 그래도 숙부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었죠…."

남편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인데 가족에 대해서만은 분명치 않아 섭섭해요. 열심히 가족 위해, 사회위해, 통일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봐요. 실리나 이윤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지금 버틸 수 있지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노동, 농민 운동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단된 조국에서 양심세력은 언젠가 피해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연대해서 노력해야겠죠."

이화춘씨 사건 직후에는 사람들이 피하더니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다. 문규현신부가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회 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열렸다.

이화춘씨는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다. 익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순덕씨는 농사를 지으려해도 오랜 공장생활의 후유증으로 농사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논은 소작주고 거기서 나오는 쌀로 주식은 해결을 한다.

그러나 생활이라는 것이 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데 익산에서 가까운 이리 공단은 8시간 노동에 40만원대의 월급이다. 이것으로는 그 많은 식구가 살 수가 없다. 또한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야 하는데 이는 특별면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특별면회라는 것이 평일에만 가능하기에 공장생활을 하게 되면 평일에 빠질 수가 없다. 이것이 요즘 이순덕씨의 고민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많은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작은책'이라는 소책자가 있다. 월간지인데 일년 구독료가 만원이다. 이순덕씨는 남편에게 작은책을 넣어준다. 그런데 자신은 구독료 때문에 못보고 있다. 남편이 '작은책'에 실린 글을 보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떤 책인지 궁금해할 뿐이다. 남편이 출소하면 7년치를 한꺼번에 볼 계획이다.

설이 되어 떡국 한그릇 먹고 한 살을 먹을 때마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묘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그리고 세월이 천천히 흐르길 바란다. 그런데 가족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 년, 한 달, 하루하루의 시간은 얼마나 길까….

하나, 두메, 미르는 시간의 흐름을 잘 느낄 수 없다. 다만 '오래도록' 아빠가 곁에 없음이 점점 이상할 뿐이다.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로 아이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몫이 너무 크다, 아프다.

아이들이 키우고 있을 고운 꿈들이 제발 역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 더 곱게 자라가길 바란다.

8 목요일의 외침

늘 곁에 있고 싶은 세희아빠!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문득 우리 세희 낳던 날이 생각났어요. 예상밖에 난산이라 10시간여 진통 끝에 결국 수술실로 옮겨가는데 의사가 수술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나는 너무 힘들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했으면 하는 포기상태였어요. 그때 당신이 “선아야, 우리 더 어려운 일도 겪었잖아. 꼭 이겨내자” 라고 소리쳤어요.

당하는 수술문 사이로 복도 끝에 서있는 당신이 보이는데 얼마나 붙박하고 외로와 보이던지.

모든 예비아빠들이 겪는 초조함. 단순히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던 8년전 그날은 학교에서 납민전 사건으로 10여년 복역한 박석률 선배의 석방 환영식이 있었죠. 당신이 나와 강연을 한 뒤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기는 10년만에 처음이라 말을 잘 못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당신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그 대가로 민청학련, 납민전 등 2차례나 무기를 선고받고 청년의 나이로 들어간 감옥문을 장년의 나이로 그것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었지요. 그렇게 빼앗긴 젊음 때문에 그렇게 짓밟힌 인간다운 삶이었기에 당신은 유독 우리 세식구가 함께 시장이며 백화점에서 물건사기를 좋아했고 퇴근길 집 주변 공원이며 오솔길을 거닐기를 좋아했죠. “이 푸른색이 얼마나 좋아. 사람이 푸른색을 못보면 병에 걸려” “선아랑, 세희랑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나에게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라며 당신은 우리가 함께 지낸 모든 순간을 소중스럽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10여년의 옥고로 고통받은 당신에게 상을 주기는 커녕 창살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가석방 상태로 묶어두고 있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아깝다는 듯이 당신을 잡아 가두는 군요. 그것도 당신이 이번 범민련 건으로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석방을 취소해 잔여형기 10여년을 살게 할지도 모른다니.

노태우도 더이상 가둬 둘 명분이 없어 풀어준 당신을 문민정부가 가두어넣는다면 그 누가 ‘역사바로세우기’니 ‘잘못된 과거청산’이니 하는 말들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당신 사주에 관재수가 많다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팔자때문이 아니라 제 민족 제 땅을 반으로 갈라 가로막고 남편과 부인의 애틋한 사랑을 가로막고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떼어가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그 오랜 세월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세희아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은 스스로 지켜내야 해요. 이번엔 제가 말할게요.

“세희아빠, 우리 더 어려운 일도 겪었잖아. 꼭 이겨내자”

우리 세희 데리고 당신과 산책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당신의 아내가.

다시 돌아나는 봄처럼

편집부

‘아, 낙성대에 계신 금선생님이
요?’

선생님의 존함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그 찰나에 나는 금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린다. 무슨 말을 해도 다 품으실 듯 인자한 미소를 얼굴 가득 담고 있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금재성 선생님(73세).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말수가 적으셔서다.

처음 선생님을 뵈는 것은 94년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에서다. 보라색 바탕에 금박이 눈부신 고상함으로 박혀 있는 점잖은 한복을 입고 계셨다, 새 신랑처럼. 선생님의 옷때문에 자리가 더 환해졌다는 기억.

그 때 선생님은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임은영 양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그 고운 한복은 임 양이 선생님께 해드린 것이라 했다. 한복만큼 아름다운 관계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번째 선생님을 뵈는 것은 몹시 춥던 지난 겨울 낙성대 ‘만남의 집’ 대문 앞에서였다. 선생님께선 한 손에 싸늘하게 식은 목욕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론 대문 고리를 잡고 계셨다. 열쇠를 가져가는 것을 깜박 잊으신 선생님은 고장난 초인종을 누르다 포기하신 채 대문 고리를 잡고 계셨다. 한 삼십분 쯤을 그렇게 서 계셨다 한다.

‘그 동안 얼마나 추웠을까, 목욕을 마친 후



니 더 추웠을텐데’

내 마음에 찬 바람이 휩 몰아붙여 속상했던 기억.

그리고 지난 주, 어렵사리 겨울 문턱을 넘는 봄의 머리를 타고 선생님을 뵈러 갔다.

금재성 선생님의 고향은 충청남도 대전시 삼성동이다.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엔 생년월일이 1924년 2월 25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태어나신 것은 그보다 앞선다. 하지만 선생님은 태어난 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신다. 2, 3년 전부터 선생님의 기억력은 심각하게 감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기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금 선생님의 연세를 여쭙는다. 전화통화를 귀기울여 들으시는 금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찡해 온다. 팽팽하게 잡고 있던 선생님의 기억력을 그 지경으로까지 쥐어 뜯어 놓은 장기간의 수감생활과 고문이 눈에 보이는 듯해 진저리가 쳐진다.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대전 제일공업보통학교 3학년때 일겁니다. ‘원산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 전체가 원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열세살 되던 때이다.

선생님은 원산 석유공장에서 석유탱크를 만드는 철공 일을 하신다. 노동자로서 선생님은 당시 일제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게 된다. 가물가물한 기억속에서도 선생님은 ‘전태범’이란 이름

을 기억한다. 그는 당시 석유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의식을 각성시키던 인물이었다 한다. 전태범 선생의 지도와 주위친구들의 영향으로 선생님은 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신다.

‘뭐 큰 일을 했겠습니까’ 며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얘기속에서 선생님의 청년시절의 윤곽을 드러낸다. 주위 일꾼들이 힘을 펴는데 용이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좋은 동지들이 싸우는데 방해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제지하셨다는 금선생님.

‘선생님, 지금도 몸이 참 좋으신데 청년때는 평창했겠어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깊은 기억의 우물에서 권투를 하던 ‘청년 금재성’을 꺼 올리신다.

선생님은 청년시절 친구들의 권유로 권투를 시작한다. 팔팔 피가 끓는 이팔청춘에 선생님은 이미 아마츄어 권투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직장대표로 평양에 가서 경기를 하기도 한다.

“그 때는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권투하는 금재성이 지나간다’ 하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땐 몸이 이랬으니까.”

선생님은 두 팔을 몸통 옆으로 붙여 벌리시며 청년때의 체격을 공간에 만드신다.

권투선수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 선생님은 직장에서도 서로 선생님을 자기 밑에 두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청 일거리도 수월하게 따올 수 있었다.

45년 해방 후에도 선생님의 명성은 조직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방후 당에 입당해 일을 하던 선생님은 평양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당시 ‘평양학원’은 3년 과정으로 간부를 양성하던 기관이었는데 선생님은 6개월만에 속성으로 학원 교육을 수료하신다. 교육을 받은 후 선생님은 원산도 보안대에 배치되어 군관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나자 강원도지구 방어사령부 작전과장으로 발령된다.

45년에서 53년. 선생님의 기억이 심하게 흔들거린다.

“제일 곤란한 것은 기억력이 감소 되는건데... 왜 이럴때 생각이 회미해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명칭이라든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이게 뭐이야 할건데...”

해방과 전쟁.

이 좁다란 땅과 순박한 민중들의 삶을 험한 갈퀴로 할퀴고 다니던 광풍들. 이리 높고 저리 높던 민초들의 고단한 삶. 태풍의 눈을 찢러 평화를 안아 오려고 무작정 달려들던 청년들의 무모한 맨손. 췌췌 하늘을 날으며 융단 폭격을 쏟아 부던 미제 비행기들의 굉음. 폭폭 주저앉는 조국강토. 통일조국의 찬란한 핏빛 태양을 따오려 용기있게 나아가다 무뎠게 스러지던 청년들의 순결한 영혼과 투쟁.

선생님의 머릿속은 한없이 혼란한가 보다. 거기에서 선생님의 꼼꼼한 성격은 대충 그 ‘치열한 날’들을 말씀할 수 없게 하나 보다.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으시던 김선명 선생님도 안타까운지 선생님의 기억력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때 후퇴로는 거의 동북아니면 강계방향이었을 겁니다.”

“아, 강계라고 하니까 생각이 조금 납니다. 부대를 인솔해 강계방향으로 후퇴를 했는데...,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말씀이 끊어진다. 선생님의 기억이 절벽처럼 똑 끊어진다. 듣는 이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뚝뚝 뭉쳐 그 절벽아래로 굴러 간다, 한없이.

전쟁후 선생님의 부대는 수풍댐 복구사업에 동원된다. 노동자출신이신 선생님은 부대장의

위치도 잊고 대원들보다 먼저 망치와 정을 들고 현장에 뛰어 들어 모범을 보이기도 한다.

그 후 선생님은 함경북도 주울 전기공업전문 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다 66년 남으로 내려 온다. 당시 중학교를 다니던 두아들에겐 통일 조국을 안겨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그 해 선생님은 대전에서 체포되고 선생님의 기억은 감옥안으로 또다시 갇힌다. 선생님은 15년을 선고받아 만기를 다 채우고도 전향을 하지 않아 청주감호소로 이감돼 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기까지 꼬박 23년을 감옥에서 지내신다. 그 속에서 든실하던 체구는 아위어 가고, 강철같던 기억력은 이제 녹슬어 버렸다.

출감후 8년.

선생님은 출감후 인천양로원에서 생활하셨다. 그때는 그래도 건강하신 축에 속하고

판단력도 또렷하여 양로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회장으로 양로원 살림을 꾸려 나가기도 하셨다.

그 후 양로원에서 나오셔서도 '일'을 한다.

손재주가 좋으신 선생님은 금은 세공을 배워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경비 서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초상화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열심히 배워 그 일을 업으로 삼으실 생각으로.

“초상화 그리는 일로 생활이 되면 생활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수전증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그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혼자 외출하는 것도 겁나는 일이다. 지난 겨울엔 외출을 했다 집을 찾지 못해 험한 골목마다를 헤메고 다니셨다 한다.

“결혼? 스물네살에 했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영롱한 부분을 건져내고 싶어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 이것만은 제발 유리처럼 투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며.

“같은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이름은 이명숙. 철공노동을 하던 여성인데 일제시대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응? 열렬히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내가 내려 올때 둘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 하실때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어 또박이 말씀하신다.

“첫째는 금. 활, 둘째 아들은 금. 충. 렬.”

벌어진 기억의 틈새에서 튼튼히 자라온 아들들. 그렇게 진하고 굵은 핏줄로 낡디 낡은 삼팔선을 짊어 지을 수



▲ 역사기행에서 회원들과 함께한 금재성 선생님. 오른쪽에서 두번째 선 이가 임은영 회원

있다면...

선생님의 기억은 열려야 한다. 선생님의 기억저 밑에 양금으로 가라 앉아 화석처럼 굳어지려하는 기억은 열려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이기에.

혹 깊고 푸른 백두산 천지의 시원한 물로 이제 다 희어진 머리를 감으신다면 선생님의 갇힌 기억이 후련히 풀려 나오지 않을까, 아직도 가슴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을 면전에서 불러 안은다면 그 굳어진 기억이 깨어지지 않을까?

기를 쓰고 겨울을 딛고 다시 돌아나는 봄처럼 그렇게 한반도에도 환한 봄이 열리길 바라며, 선생님의 손을 굳게 잡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가협 어머니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면복권조치가 있다하여 기대가 크셨을텐데 얼마나 실망스러우십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김성만씨가 사면될 거라고 보도되어서 김성만씨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실까. 애쓰신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셨겠어요. 한가닥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해야 이제 사면이 될 가능성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전에 반제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민가협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들이 안기부 앞에도 오시고 법정에도 오시고 곳곳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이야기해주시는 등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계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 구속될 때부터 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진행되었고, 나에게 씌워진 혐의가 왜 씌워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어떻게 보면 제 정신을 잘 못차렸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공소장을 받아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첩 혐의가 벗어졌으면 당연히 풀려나야 할텐데 왜 기어이 기소가 되었는지, 그 기소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쟁을 하자니 어이가 없고 어쨌든 기소가 되었으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심리상태에서 애매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민가협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한 것도 봤습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민가협은 양심과 신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는 아실 것도 같고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경험으로 "아!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겠구나"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분들이 많겠구나"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조사를 다니다가 범민련 관계자분들을 몇 번 스쳐보는데 추운 겨울에 나이드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그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통일 운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무자비한 구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또 '말' 지에 실린 감옥에서의 편지글은 하나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출산을 얼마 앞둔 산모를 구속해서 아이를 사산하게 된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세 봉건시대도 아니고 21세기를 앞둔 한국에서 말입니다. 아직도 왜 우리사회에는 이렇게 가슴아픈 일들, 고통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머님들 건강하십시오. 내내 만수무강하십시오. 늦게나마 세배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보라색 수건은 양심의 깃발입니다. 어머니들이 계셔서 힘을 얻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96년 2월 25일 서울구치소에서 충렬 올림

- 박충렬 씨는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증거가 하나도 없자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7조) 혐의로 기소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옥에서 세상으로 이르는 길 - 영화 <올(Yol)>

안소영 (회원)



사와 지리,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모습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옥과 군복이다. 인간에 의해 인간이 가두어지는 것에는 그 장소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마찬가지로의 생각인지 세계의 감옥은 한결같이 굵은 창살과 하얀 담장, 높다란 망루로 이루어져 있다. 군복과 철모 역시 그러하다. 국방색은 나름대로의 자위적인 보호색이라고 하던데 어쨌건 모든 나라가 한결같은 색깔과 모양이다. 게다가 그것이 부당한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입혀진 군복과 철모라면 그속에서 번들거리는 오만한 눈빛 역시 모두가 똑같이 섬찟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감옥과 군복으로부터 받는 같은 이미지, 영화 <올(Yol)>을 보면서 나는 내내 내가 살고있는 이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는 다섯명의 수인(囚人)들이 '가출옥' 허가를 받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옥을 나서기까지 긴장되었던 그들의 얼굴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부터 평온하게 풀려진다. 감옥 안에서의 가라앉은 모습과는 달리 달리는 차안에서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가득차 있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간은 '자유인'인 것이다.

하지만 바깥 사회의 현실은 그들의 자유를 온전하게 반겨주지 않았다. 군부쿠데타와 뒤이은 계엄으로 터키 사회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곳이었다. 어디서나 검문과 검색이 이루어졌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뒤돌아서서 총을 든 군인들의 몸수색에 응하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의 모습, 그 위로 내게는 자꾸만 80년 광주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증명서를 잃어버린 유세프는 다시 끌려가고 만다. 어린 신부를 위해 옥중에서 키운 카나리아를 전해주지도 못한채 다시 유치장에 갇혀야만 하는 것이다. 나머지 네 사람의 길은 수많은 검문을 통과하면서 이어진다. '올'은 터키어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 삶의 여행'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자신이 없는 동안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괴로워하던 세이트는 결국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연민과 회한으로 가득찬 마음이 된다. 이러한 그의 갈등이 터키 북부 지방 특유의 설원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자신의 용기없음으로 인하여 처남이 죽게되었고 그로 인해 적의를 갖고 있는 처갓집으로 메메트는 아내와 아이

들을 만나러 간다. 메메트의 솔직한 고백에 아내는 그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아이들과 함께 몰래 도망쳐 나온다. 그들의 기차여행은 애뜻하기만 하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만나는 어린딸은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아빠가 있대도 동생은 곧이듣지 않아요.”

오메르의 형은 터키 정부에 반대하는 쿠르드족 게릴라였다. 참담한 전투로 그의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되는 정부군의 M16 총소리가 이제는 무감각할 지경이다. 형은 무참히 죽고 그는 터키의 관습에 따라 형수의 남편, 조카들의 아버지가 된다.

서로 다른 각 사람의 길은 터키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깊이 있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영화의 카메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해낼 수 없을 것이다. 노란 꽃들로 가득한 벌판과 끝없이 이어진 푸른 하늘, 완만하고도 낮은 언덕들은 여기저기 정답게 펼쳐져 있다. 특히 감독의 출신지이자 소수민족으로서 박해와 설움을 한몸에 받았던 쿠르드 지방의 자연은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함께 어우러져 애상적인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일주일 간의 가출옥 기간이 끝나가고 그들은 각자 돌아오는 길에 오른다. 그들이 처음 떠나올 때의 지시사항, “정해진 날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고가 되새겨지지만 그들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는지는 영화 바깥에서는 알 수 없다.

터키의 현대사는 1960년 군부쿠데타로 시작하여 민정과 쿠데타가 오락가락하는 혼란의 역사였다. 터키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자치권을 요구하는 쿠르드족의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터키 군사정부는 이를 무참하게 탄압해왔다. 공교롭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80년, 터키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영화의 배경은 바로 이 시기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세 차례나 투옥되었던 감독 일마즈 귀니는 이 영화를 바로 감옥 안에서 만들었다. 그는 바깥에서 촬영된 필름을 감옥벽에 걸린 담요를 스크린 삼아 검토하였다고 한다. 가끔 면회오는 배우와 상의하기도 하고, 가출옥 때마다 작품을 수정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극찬을 받은 이 영화를 완성하였다.

감옥 안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땅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있다. 영화 제작은 고사하고 그들에게는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발표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일마즈 귀니 감독이 이 영화작업을 했던 것은 80년대 초반, 터키군사정권의 감옥에서였다. 하지만 우리의 문인들이 그들의 펜이 꺾인채 갇혀있는 곳은 90년대 중반, 이른바

문민정권 아래의 감옥이다. 세계화니 경제성장이니 소리높여 외치지만, 적어도 감옥안의 현실에서 만큼은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영화를 통해 보더라도 터키 감옥에서는 '가출옥' 조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감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바깥사회를 접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적인 이유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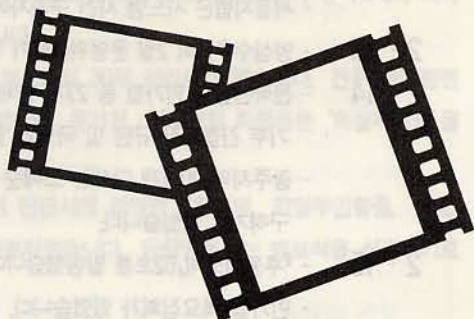
하지만 나는, 감옥안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장기수 선생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어느날 갑자기 끌려간 수많은 양심수들, 이 모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라도 그들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을 잠시라도 자유롭게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엄마 뱃속의 아기가 자라 국민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도록, 아직까지 아버지와 따뜻한 밥 한끼조차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가 칠순이 되고 팔순이 되어도, 감옥 안의 아들은 가까이에서 큰절 한번 올릴 수 없다.

삶의 질을 높이자는 말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감옥 안에서의 생활 만큼은 그 물질적인 수준의 질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거기에 사람의 신념과 양심이 보호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로 수많은 양심수들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을 내버려두고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눈빛은 무척 강렬하다. 군사정권 아래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한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진지하고도 강렬한 눈빛을 가지게 해준 것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양심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깊고 강렬할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어딘지 너무나 낯익은 사람과 풍경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 바깥의 현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

감옥으로부터 세상 속으로의 길은 이제 이땅의 양심수들에게 조건없이, 제한없이 열려져야만 한다.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가두어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조차 자유투박하게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 2 · 1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사 송우달 노조위원장이 소송사건을 설명했고, 양심수 이용덕 군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가 함께 했습니다.
-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이수금)은 보라매공원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자금책 등 농정개혁을 주장했습니다.
- 2 · 5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에 항의해 철탑에서 농성중이던 세입자들이 새벽 5시경,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반원 200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신연숙 씨가 감시 철탑에 난 불을 피하기 위해 18m 망루에서 뛰어내려 뇌출혈로 숨지고 주민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2 · 6 - 수감중인 여성 양심수에게 탈조끼를 넣어드렸습니다.
- “꽃다지” 대표 이은진 씨 구속에 항의하여 민예총은 6일부터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꽃다지는 8일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매일 12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구속예술인 석방 거리공연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 서울고법 민사 11부는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문국진 씨에게 국가는 치료비 등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2 · 8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민민학련 구속자 이동빈씨 동생, 사노맹 재건사건 우회정씨 약혼녀, 경원대 고 장현구 대책위 상황실장의 사례발표, 그리고 노동해방문학 사건으로 5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장민성 씨가 석방인사를 했습니다. 서강대 노래패 맥박이 함께 했습니다.
- 2 · 9 - 민가협 11차 총준위 두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협의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이틀동안 열려 95년 사업평가와 96년 조직전망을 논의했습니다.
- 2 · 10 - ‘통일인사 석방과 범민련 사수를 위한 하루주점’이 동국대에서 있었습니다.
- 사노맹 가입, 활동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씨 등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변호인 접견 거부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법경찰관 처분에 관한 준항고’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 2 · 11 - 민족시인 고 김남주 님의 2주기 추모모임이 광주 망월동 열사묘역에서 있었습니다. 뒤이어 5시부터는 ‘김남주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 2 · 12 -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과 관련, 잇단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대학생 300여명이 일본대사관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서울지법은 사노맹 사건 구속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2 · 13 - 양심수후원회 2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8차 총준위 구성 문제, 양심수 가족 돕기 등을 협의했습니다.
- 2 · 14 - 전국연합과 민가협 등 27개 단체가 만든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 조작 공동대책위원회’는 탑골공원에서 안기부 간첩조작 규탄 및 국보법 철폐 촉구대회를 가졌습니다.
- 광주지역 20여개 단체는 고애순 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성보호 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2 · 15 - 『후원회소식』52호를 발송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은진 꽃다지 대표 가족(시아머니 김권실 씨) 사례발표, 고애순씨 아기 사망 사건 규탄 성명서 낭독, 양심수 편지 낭독이 있었습니다.

- 꽃다지가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 민가협 11차 총준위 3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평가 등이 있었습니다.
- 2 · 16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 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투병중인 양심수 가족에게(박노해, 황인오 씨 어머니)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 2 · 19 - 민족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께 인사를 다녔습니다.
- 2 · 21 - 『말』 3월호를 장기수 5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 2 · 22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범민련 박석률 씨 부인이 나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구미유학생 황대권 씨가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꽃다지가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 민가협 11차 총회준비위원회 세번째 모임이 열려 민가협 사업과 사무국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 2 · 23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 교수에게 국가기밀 누설 일부 혐의에 무죄를 결정하고 3년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7년)
- 국가안전기획부는 안기부 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전 창일(범민련으로 구속중)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가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한 안기부의 대응 논리로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밀실, 비밀 수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 인천 황영태 선생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식 1주년 기념대회가 건국대에서 1,000여명이 함께해 열렸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 복권 조치가 있었습니다. 양심수는 배제된 가운데 슬롯머신, 수뢰 사건 등의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복권 시키는 반문민적인 조치였습니다.
- 2 · 25 - 고 윤기남 선생님 1주기 추모 모임이 망월동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이 28명이 참석해서, 도봉산 능선을 지나 청룡사 터에 이르는 포대능선의 위용을 보며 봄을 맞이하는 산행을 마쳤습니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의원대회가 연세대에서 열렸습니다. 96년 주요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5.6공 완전 청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 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 2 · 26 - 평소 만성C형 간염과 허리불편으로 병약하신 주명순 선생님(범민련 사건으로 구속, 성동구치소 수감중)이 차가운 냉방, 부실한 식사 등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외부진료(효동병원)를 받으셨습니다. 74세의 허약한 할머니를 감옥에 가두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합니다.
- 전두환 뇌물사건 첫 공판이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전두환은 뻔뻔스럽게도 뇌물을 정치자금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 회원들은 '학살자처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법원앞에서 벌였습니다.
- 2 · 27 - 성동구치소 주명순 선생님을 면회하였습니다. 효동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C형간염, 저알부민혈증, 위염, 척추이상 등 여러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병보석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지법 형사 1부는 범민련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유근삼 씨를 비롯, 권오봉,

- 나경일, 김동순, 한기명 씨 등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김병길 씨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2 · 28 - 민가협 제11차 총회준비위원회 다섯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정보고, 각 협의체 조직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5년이상 장기 복역 양심수 97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무연고 출소 장기수 13분과 만남의집에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미국수도장로교회에서 보내는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의원, 김태룡 씨 자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 양심수 가족돕기 성금으로 이화춘 씨(국가보안법 위반, 7년형) 가족에게 100,000원을 드렸습니다.
- 2 · 28 -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군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널 어브 코머스』의 톰 서록기 자는 80년 5월 8일자 비밀전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연합 등은 미국의 공개사과와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2 · 29 - 음성꽃동네 유한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밖으로 모시고 나와 충주 탄금대까지 다녀왔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셨고 3월 1일부터는 지금의 병실이 아닌 구원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실 예정입니다.
- 통일맞이 서우영 님 애쓰셨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임기란 어머니가 3.1절 기만적인 사면조치에 대한 성명을 낭독하셨고 강민조(강경대 열사 아버지)님께서 전두환 재판 방청을 보고하셨습니다. 꽃다지가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민가협 제11차 총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선봉
보랏빛 수건의 인권 보루

민가협 제11차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언제: 1996. 3. 22(화) 늦은 2시

어디서: 홍사단 강당(대학로)

1부 총 회

2부 기념식

많은 회원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산행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 위로 여린 싹이
푸르게 머리를 내밉니다.
찬기운 감돌던 대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냥 그 속에 잠기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 푸르른 자연에
머리 한 번 뉘여보자구요, 3월 산행에서!

언제 • 1996. 3. 24(일) 10시

어디로 • 북한산(비봉)

모이는 곳 •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가)매표소 앞
준비할 것 • 도시락, 회비 3천원

2월에 구속된 양심수

또 제3자 개입 혐의 구속

지난 94년 지하철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3자개입 혐의로 3년째 수배중인 양규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월 1일 연희동 도로에서 2, 30여명의 경찰에 의해 연행당했다. 이들 경찰 중에는 양규현 씨 집에서 세들어 살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경찰들은 연행에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권총을 뽑아들어 위협했다고 한다.

노래책 만들었다고 노래패 대표, 출판사 대표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

이은진(30. 여. 노래패 '꽃다지' 대표). 원용호(31. '민맥' 출판사 대표) - 2월 3일

이은진, 원용호에 대한 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는 “노래책 ‘희망의 노래’에 실린 노래가 북한을 찬양, 고무 했다”는 것이고, 이 책을 제작, 인쇄, 판매한 것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은진은 ‘희망의 노래’에 실린 노래를 선곡하고 이 책을 편집한 것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에 해당되며, 원용호는 ‘희망의 노래’를 인쇄, 판매한 것이 국보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노래책에 실린 노래 일부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것.

‘희망의 노래’는 92년에 1집이 출판된 이후 매년 1권씩 출판되어 95년까지 1집부터 4집까지 출판되었다. 이 책은 92년부터 서점에서 널리 팔려왔다.

노래패 ‘꽃다지’는 92년 3월부터 활동해온 노래그룹으로 가수 7명과 악단 7명, 작곡단, 기

획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그룹이고, 최근 KBS등 노래 프로에 출연하고 있다. 민맥출판사는 89년 7월에 설립해 수백권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이며 ‘희망의 노래’를 이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사노맹 가입 혐의 9명 구속

2월 3일 강희원, 민병래씨등 9명이 서울 경찰청 장안동 보안분실 수사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월 5일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들 중 구미경(민병래씨의 부인)씨는 풀려났다. 또 2월 4일 이상윤씨가 체포되어 2월 6일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의 구속사유는 사노맹에 가입한 혐의이다. (국보법 3조: 반국가단체 가입)

그러나 이들은 92년 4월 사노맹 대표 백태웅씨 등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사노맹의 활동은 정지되었고, 이들이 최근 3-4년간 사노맹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강희원(32. 다산정보시스템 관리기획과장. 전 진보저널 편집국장)

민병래(36. 진보정치연합 노동위원장)

권순미(여. 32.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재학중)

우희정(36. 논산지역 택시노조 위원장)

유형욱(30. 학원강사)

한봉수(33. 환경관리공단 기술부 검사측정과 재직)

임종원(33. 학원강사)

김진중(32. 한국타이어 해고자)

이상윤(29. 학원강사)

민민학련 가입협의 5명 구속

1월 30일 오전 9시경 이동빈 등 군인 5명을 기무사 수사관들이 연행하였다. 연행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빈 등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눈에 검은 안대를 씌었다.

민민학련은 91년 결성한 사회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단체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92년 민민학련 회원 다수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민민학련은 해체하였다. 93년부터는 민민학련 회원 일부가 '젊은 벳'을 만들어 학생운동을 하다가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동빈 등 5명은 94년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하였다. 이들은 96년 5월-6월에 제대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기무사 수사실에서 3-4시간 자는 시간 이외는 2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가족면회가 여러차례 거부되었다. 특히 이동빈씨는 95. 12. 말경 군대에서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대기 중에 있었는데도 체포되었으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불구가 될 가능성이 큰 중환자임에도 체포된 후 기무사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체포되기 3일전인 1. 28. 허리통증으로 거동을 못하자 이기린 정형외과에서 MRI, CT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디스크로 판정하였다. 또한 96. 1. 중순경 국군통합병원 군의관이 하루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였으며 군대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하였고 2. 1.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예정되어 있었다.

이동빈(27. 연대 불문과 졸. 병장. 93년 '젊은 벳' 편집부장)

안창현(26. 서울대 국문과 졸. 상병. 93년 '젊은 벳' 의장)

정중국(25. 고대 행정학과 졸. 병장. 92년 '민민학련' 고려대 대표)

정택상(26.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 상병. 94년 '젊은 벳' 집행위원)

박종서(25. 성균관대 졸. 중위. 93년 '젊은 벳' 성균관대 대표)

서울대 노나매기 25,27일

2월 25일과 27일, 서울대 연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던 중에 학교 재학시절에 활동한 바 있던 정치조직 노나매기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재영(계산통계 90) 오민규(수학 91) 김창겸(수학 92) 강문식(수학 92) 류은정(종교 93) 이홍일(무기재료 94) 김민우(화학 92) 서범석(사회 93)

집회 시위 관련

2월 3일, 부경총련이 신한국당을 기해 항의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연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 처벌에 관한 위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허화영(동명공전) 강성호(동아대) 박운(동아대)

윤지현(동의공전) 김경호(부산대) 이용찬(부산수산대)

-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류시현(조선대) 박규현(조선대) 김욱(조선대졸)

양해진(조선대졸) 백광해(전남대) 신근호(전남대)

인 권 소 식

임산부 고애순씨 구속적부심, 보석 모두 기각 끝내 아이 사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인 고애순씨(28세)가 1월 31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4월 20일까지)되었으나, 2월 5일 뱃속의 아기가 사망하였다.

고애순씨는 95년 12월 4일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전라남도 경찰청 보안분실에 체포되었다. 당시 체포사유는 범민련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죄(7조3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고애순씨가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 고씨의 변호인과 학계, 종교계, 여성계, 시의회 등에서 고씨의 석방을 사법부에 호소하였다. 95년 12월 13일 고씨의 가족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12월 14일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96년 1월 31일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다"며 기각하였다.

1월 31일 고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월 5일 병원에서 아이를 사산하였다.

고씨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서 2개월 수감되어 있었다. 얼굴이 붓는 등 이상증세가 있자 매일 의사검진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당하였다. 그러다 1월 29일 구속된지 50여일만에 처음으로 의사진료를 받았다.

고씨는 12월 27일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러나 애초 구속사유였던 범민련 가입 문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국가보안법 7조3항으로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고씨를 기소하기 힘들어지자 고씨가 구속 직전 광주전남연합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고 광주전남연합에서 발행한 기관지,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문제삼아 기소하였다. 고씨에게 씌운 국가보안법 혐의는 고씨가 직접 기관지,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니고 고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94년과 95년 광주전남연합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면서 적용했던 공소사실인데 고씨가 광주전남연합 활동가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들과 똑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한편 광주지역의 여성, 인권 등 20여 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온갖 법적 소송과 여성 재소자 인권 문제등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선명 선생님 2월 22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

소장은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 1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심사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 등본을 원고에게 송달, 원고가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원고(김선명)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안관찰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수감한 것은 위법이며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 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회원소식

● 그동안 양심수를 위해 헌신 해주셨던 많은 회원들이 15대 총선에서 다음과 같이 입후보 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김근태 님(도봉 갑), 임종인 님(성동 갑), 천정배 님(안산 을), 박계동 님(강서 갑), 김희선 님(동대문 갑), 김영환 님(안산 갑), 함운경 님(관악 을), 이철 님(성북 갑), 이부영 님(강동 갑), 성유보 님(성남 분당), 장기표 님(동작 갑), 김병오 님(구로 갑)

● 고 강경대 열사 24해 생일을 맞아 아버지 강민조(전 유가협 회장)님은 광주 경민회관에서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과 광주시내 12개 양로원에 있는 노인 1,000여 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과 명지대·전남대 총학생회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 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 2월 6일, “참사람의 모임” 회원 7명이 만남의 집을 찾아 뷔프 음식을 나누며 좋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를 한마리 잡았다는 풍문이 떠돌았답니다.

● 지난해 8월 만기출소한 장의

균 님(개마서원 대표)은 2월 7일부터 ‘현노 최규일 전각전’을 21세기 화랑에서 7일동안 대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사회는 4월 5일부터 11일 까지 교보문고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개마서원 (736-6818).

● 2월 10일, 강원대 96년도 졸업생 환송의 밤 행사에 양계숙 회원과 함께 참여해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2월 16일, 인천에 사시는 황영태 선생님께서 뇌혈전증으로 쓰러져 왼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한채 아드님댁에서 한방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연로하심에도 민가협 목요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양심수 석방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연락처 (032-424-1105)

● 2월 21일, 사당의원에 입원 중이시던 김도한 선생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회원 여러분과 사당의원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은 가평대성리 천주교가 운영하는 ‘해돋이 공동체’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박해일 실장님과 관계

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 0356. 84. 2507)

● 여든여덟 김영철 회원이 3월 23일 오후 3시 30분 안국동 현대 건설 본사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후원회소식』편집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현희 회원이 4월 27일 혼례를 올린답니다. 새결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정미연·김이중 회원이 오랜 열애 끝에 4월 28일 12시, 광주역 앞 신명아트센터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3월 2일, 임은영 신유호 회원이 3월 6일, 홍전영 강정구 회원이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처음처럼

(단국대천안교정 90모임)-정현경, 조은미, 황일환, 윤지현, 오수연

· 88과 아이들

(이화여대 사범대 89학번 모임) -12명

· 김병도(종로구 무악동)



양심수후원회를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4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38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68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에게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과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